

#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 6만명 찾은 힐링공간 호평

##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성황

‘가족을 품다, 해남을 품다’ 주제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위탁운영 주민편의증진...서비스 제공 앞장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대표이사 정영희)이 위탁 운영하는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가 ‘가족을 품다, 해남을 품다’를 주제로 지난5일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센터 내 기관장과 종사자, 기관계자, 이용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지난 1년간 진행된 경과·성과보고, 영상시청, 향후 계획, 해남형 ESG실천, 이용자 소감 등으로 진행됐다. 공립해남어린이집 원아들의 ‘내가 바라는 세상’ ‘생일축하송’ 축하 공연, 생일떡 커팅식 등이 이어졌다.

이현아 상임이사(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는 기념사에서 “해남군과 종사자, 해남군민들과 함께 상호 협력해 가겠다”며 “해남 가족복지서비스 중추기관으로 가족복지 서비스를 통해 성장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해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김승씨는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 만족감이 높다”며 “가족어울림센터 덕분에 도시인 못지 않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대표이사 정영희)이 위탁 운영하는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센터장 정광선)가 지난5일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2억원, 지방비 116억원 등 14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39㎡ 규모 건립됐다. 지난해 4월 7일 개관해 1년만에 6만명이 찾은 등 성과를 거뒀다.

센터 1층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무지개교실과 운영사무실, 2층에는 장난감도서관과 동네카페, 가족교류소통공간, 실내놀이터가 있다. 3층 해남군가족센터와 동네부엌, 공동육



아나눔터 2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4층에는 대·소교육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3월~4월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선보인 주요 프로그램은 ‘순간포착!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주제로 군민 가족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봄이활짝 오감속속 △레터링 케이크 만들기 △가족을 잇다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창의놀이교실 △중국어교실 등이다.

정광선가족어울림센터장은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와 함께 가족구성원들이 돌봄, 소통, 문화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복지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영암왕인축제, 폐기물 7.1톤 ↓ 영암군, 일회용품 없는 행사

영암군은 최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시범 실시한 영암왕인문화축제가 폐기물 감량 등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왕인문화축제 시작 전 음식점·푸드트럭 모집·공고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했다.

축제장 내 푸드코트와 시식코너 등 모든 부스에 13종 다회용기를 제공했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축제 방문객들은 반납 부스에 되돌려줬고 영암군은 매일 수거된 4만개를 고온·고압 세척과 건조, 살균 작업을 거쳐 다시 축제장에 내놓았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년 축제에 비해 영암군 추산 7.1톤의 폐기물을 감량했다. **영광=이병영 기자**

##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축하금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지급

무안군은 오는 15일부터 보편적 교육 복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받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중·고·대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 이후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 10만원, 대학 신입생 1인 1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이다.

대학 신입생은 입학연도 1월 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무안=김형민 기자**

## 완도군 ‘바다숲 조성’ 맞손 효성그룹·수자원공단 등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완도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지난 8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동고리 해역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실천’ 업무협약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유인정 효성그룹 전략본부장, 장옥진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바다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해조류, 해초류(잡피) 등을 이식해 1.59㎢ 복합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완도=정태영 기자**

## ‘2026 세계 섬학술대회’ 유치 목포대·신안군 성과



흑산도 흥도마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제20회 세계 섬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해 오는 2026년 6월 말 신안군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섬학술대회는 세계 섬 연구기구 연합인 ISISA(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가 2년마다 해외의 주요 섬 지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 전문학술회의로서 50여 개국에서 2000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신안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 섬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섬의 회복력과 혁신’이란 주제로 1주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유치 제안서를 작성한 홍선기 교수는 “지난해 11월 유치 제안서를 ISISA 본부에 제출했다”며 “4대 1의 해외 섬 국가와의 경쟁을 뚫고 2026년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포대가 지향하는 글로벌 해양 특성화에 맞춰서 세계 섬 발전을 견인하는 대회”라며 “한국의 섬을 세계에 알리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신안군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오는 6월 25~29일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개최하는 제19회 대회에 참석, 2026년 대회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 전남도 ‘친환경농업 첨병’ 왕우렁이 360톤 공급

이양 5일내 살포 제초제 효과 ↑

전남도가 논 잡초 제거를 위해 친환경 농업의 첨병인 왕우렁이 360톤을 배 재배 농업인에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억원이 투입되고 3만1658ha에 공급된다.

왕우렁이를 이용한 농사는 대표적인 친환경농법으로 이양 후 5일 또는 썩레질 후 7일 이내 논 10a당 1.2kg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제초제 98% 효과를 보는 농법이다.

노동력 해결과 경연비 절감에 보탬이 돼 친환경 배 재배 농업인 88.5%가 왕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고 있다. 왕우렁이는 물 속 잡초를 갉아 먹는 습성이 있어 피, 물달개비, 올방개 등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슈퍼 잡초까지 99% 제거한다. 제초제 사용보다 40~50% 영농비용이 절감돼 많은 농업인에

각각광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말 왕우렁이 관리 지침을 마련한 후 시·군에 전파해 왕우렁이 관리·수거 요령 등을 교육 중이다. 왕우렁이 농경지 주변 자연 유출 방지 목적으로 왕우렁이 일제 수거(1~3단계) 기간을 단계별로 지정·운영해 농업인 수거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왕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농가에 없어서는 안 될 농사꾼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논 물 관리와 논둑·배수로 그물망 설치관리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해 왕우렁이를 통한 친환경농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해양치유 활성화’ 완도군, 경영·브랜드 대상 수상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경영대상과 브랜드대상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도시브랜드 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말부터 ‘2023 K-웰니스 푸드 & 투어리즘 페어’ 2년 연속 K-웰니스 브

랜드 대상, ‘K-브랜드 어워즈’ 대상,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 최우수상 등에 이어 ‘해양치유’ 분야로 4관왕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 대상’은 뛰어난 경영전략과 성과를 보인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완도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 해양치유산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완도군은 청정한 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 등을 보유해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내 최초 16개 테라피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가 힐링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으며 약산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 전남농기원, 팽이버섯·만가닥버섯 베트남 수출

신선농산물인 팽이버섯과 만가닥버섯이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 첫 수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나주 호남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팽이버섯과 해남 농업회사법인(주)수안에서 생산한 만가닥

버섯을 ㈜그린가온을 통해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팽이버섯 5.1t과 만가닥버섯 1.9t이며 해남 새송이버섯을 추가해 매주 6톤씩 베트남에 유통된다.

이번 수출은 전남농기원에서 수출용 프리미엄 버섯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신선&가공식품 팽이버섯 포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지원해 이뤄졌다. 박용철 전남농기원 기술지원국장은 “수출 가능한 지역특화 농식품 발굴과 전문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